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소식지 / 발행인 김혜원 / 편집인 고진강 / 편집조교 금다정

2021년 10월 8일 금요일(제 22호)

## 간호과학연구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COVID-19 팬데믹 사태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계절은 바뀌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생활도 현 사태에 적응하여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추석은 예전보다는 소박했을지언정 여느 때 보다 더 풍요롭고 따뜻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는 1995년 설립 이래 간호학의 발전을 선도하는 우리 간호대학의 이념에 발맞추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연중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는 본교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활발한 연구를 돋기 위한 학술활동 및 연구활동 지원프로그램과 국내외 유수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를 전해 듣는 세미나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간호의 혁신과 간호학문의 발전을 이끌 글로벌 리더의 양성을 위해 ‘간호플러스’라는 세미나 시리즈를 열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의 융합 등과 같은 현시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최신 의료 동향을 소개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을 논의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3년마다 이뤄지는 연구소 운영 평가가 실시되었는데 저희 간호과학연구소는 ‘최우수 등급’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는 전 소장님과 사무국장, 겸무위원, 운영위원 등 많은 분들의 소중한 노력에 대한 결실임과 동시에 앞으로 연구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지한 격려이기도 합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는 국내외 간호 연구를 선도하는 독보적인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간호과학연구소는 다학제 융합연구를 통한 간호혁신을 선도한다는 목표하에 의학, 데이터 과학, 의생명공학, 컴퓨터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간호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28일에는 ‘다학제 협업을 통한 간호혁신’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간호 플러스 세미나를 통한 다학제 연구들의 강연과 데이터 분석기술 함양을 위한 특강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문, 교직원, 재학생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함께 연구소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장 김현의



간호대학 소식 ①

## 교수동정 주요 보직현황

승진 (부교수 → 교수) 및 정년보장

고진강 교수 (2021. 9. 1.자)

정년보장

탁성희 교수 (2021. 9. 1.자)

### 서은영 교수 :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사회 대비의 출발점이다

간호대학 서은영 교수가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기고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5대 직종은 모두 의료법이라는 단일법에 묶여 있으며, 한국은 OECD 아시아 회원국 중 간호법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숙련된 간호사가 많아질수록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선진국은 더 많은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한 법령을 만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간호사

업무와 역할, 양성 방안, 근무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다룰 간호법이 없어 힘겨운 현실 속에서 소명 의식만으로 버티고 있다. 이에 서은영 교수는 전문적인 간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간호사 확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간호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하는 이 시점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박현애 교수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어려움 거버넌스로 풀어야

간호대학 박현애 교수가 지난 6월 '바이오���리아 2021'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의료 데이터 현안 관리를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 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으나,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병원과 보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다수였던 과거와 달리, 웨어러블 기기 또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데이터까지 보건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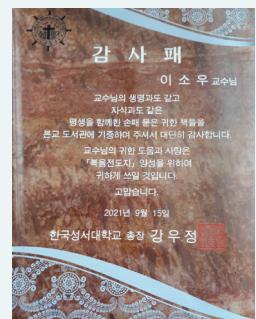
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현애 교수는 세계의료정보학회장을 역임한 보건의료정보분야 전문가로서,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양한 법과 정부 규제, 그리고 데이터가 병원이나 과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표준화하고 구조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어느 분야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소우 명예교수 :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 전문 서적 500여권 기증

간호대학 이소우 명예교수가 신생 간호학과를 설립한 한국성서대학교에 간호학 전문 서적 500여 권을 기증하였다. 이소우 명예교수는 간호대학 제1회 입학생으로 1964년 졸업하였고, 본교 교수로 정신간호학 교육과 연구로 43년간 재직하면서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다. 대한정신간호학회장, 한국시그마학회장, 한국간호교육학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스트레스, 호스피스, 건강가족학회 등 다학제 참여를 이끌면서 간호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2006년 정년퇴임 이후에도 일본 오이타 대학의 교육자로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글로벌 간호학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올해 9월 이소우 명예교수는 후학 양성을 위해 오랜 기간 소장하고 있던 귀한 국내외 서적을 한국성서대학교에 기증하였으며, 이에 한국성서대학교는 이소우 명예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간호대학 소식 ②

## 연구실 텁방 서울대학교 간호정보통계 연구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간호정보통계(Nursing Informatics & Statistics) 연구실은 보건통계/보건의료정보학을 전공한 박현애 교수님의 지도 아래 임상 및 소셜 빅데이터 분석,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국민 건강정보 포털, 보건의료개념 측정 등 보건의료정보 및 통계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실이다. 간호정보통계 연구실에서 최근까지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 중인 주요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간호정보통계 연구실에서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21년 상반기까지 수행해온 임상 빅데이터 분석 연구에서는 낙상, 욕창 등 환자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환자진료 접점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위험요인별 맞춤형 중재를 제공하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임상 효과를 입증하였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 연구에서는 청소년 우울, 저출산, 암생존자들의 정보요구 관련 개념들을 추출한 후 이를 개념간의 관계 뿐 아니라 소비자 용어를 연계한 온톨로지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일반 국민들이 소셜미디어에 포스팅하는 글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감성, 암생존자들의 암관련 정보 요구도 등을 파악하였다.

간호정보통계 연구실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진행중인 보건의료표준화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국제 표준 용어체계인 SNOMED CT의 국내 도입 및 확산 방안 및 한국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SNOMED CT의 국내 도입 및 확산을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보험청구코드 등 국가 표준코드를 SNOMED CT에 매핑하여 발표하였고, 암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하고 있는 5개암(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 관련 인구학적 변수, 주호소, 과거력/가족력/사회력, 진단, 검사, 항암치료, 예후관련 데이터 항목 및 항목의 값을 표

준화한 후 SNOMED CT 기반 표준 레퍼런스 세트를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SNOMED CT의 한국판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간호정보통계 연구실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참여 기관에서 근무 중인 의료용어 표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분기별 ‘의료용어 표준 심화과정’ 교육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주관하고 있는 격주별 ‘SNOMED CT Concept Model 세미나’를 맡아서 국내 SNOMED CT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SNOMED CT관련 강의 영상은 Youtube와 온라인 플랫폼 Edwith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보건정보통계 연구실은 질병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2018년부터 수행 중인 국가건강정보포털 제공 체계 구축 및 운영 연구 과제의 세부과제를 맡아 포털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를 일반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 수준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 일반국민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영역(진단, 치료, 예후)별, 신체계층별, 성별, 연령별로 나눈 후 계층 구조로 배치하고 소비자 용어를 찾아 매핑하고, 건강정보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주제별로 분절화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간호정보통계 연구실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전에 주별 연구모임을 갖는데 이 모임에는 연구실 소속 연구원 뿐 아니라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정보협동과정,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과정의 연구생, 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표준화부 소속 연구원들이 참석하여 SNOMED CT를 포함한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2021년 스승의 날 교수님과 지도 학생들이 함께한 모습과 매주 금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주별 연구모임에서의 토론 모습을 담고 있다.





## 간호대학 소식 03

## 2021년 QS 세계대학평가 – 간호 부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38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1 QS 세계대학평가 분야별 순위’에서 국내 1위, 세계 38위로 높은 성적을 내었다. 국내 간호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50위 이내에 위치하였으며, 아시아 대학 중에서는 Top 3로 2019년 34위, 2020년 35위에 이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21 QS 평가는 총 4개의 평가 지표로 ▲학계 평가(Academic reputation) ▲졸업생 평판(Employer Reputation) ▲논문 인용 수(Citation per Paper) ▲H인덱스(H-index Citation)를 활용하여 순위를 산출한다. 우리 간호대학은 학계평가 79.1점, 졸업생 평판 81.6점, 논문당 인용수 86.2점, H-인덱스 83.4점으로 총점 82.8 점을 받아 지난해에 비해 총점이 상승되었다. 이번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서울대학교는 세계 37위이며, 전체 86개 학과(부) 중 32개 학과에서 세계 50위 이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 간호대학 소식 04

## 서울대학교 총장단 간호대학 방문

2021년 4월 27일(화) 서울대학교 총장단이 연건캠퍼스에 위치한 간호대학을 방문했다. 이번 총장단의 방문은 간호대학의 현황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오세정 총장과 김용진 기획처장, 김은미 교무처장, 구민교 학생처장, 황선엽 연구부처장, 서은영 학생부처장 이상 6인이 방문하였다.

김혜원 학장을 비롯한 간호대학 교수진과 교직원들은 총장단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간담회는 김혜원 학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하여 간호대학의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로 이어졌다.

이날 간호대학은 재학생 대비 부족한 전임교원의 확보율과 관련하여 ‘간호대학 교수 충원’에 대한 간호대학의 입장을 총장단에게 전하였으며, ‘융복합 연구 확대를 위한 지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간호대학 공간 사용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교육 및 학습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COVID-19로 인해 간담회 종료 후 간단한 단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총장단 방문 일정이 종료되었다.





## 간호대학 소식 05

# 2021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간호대학생 연구발표회

2021년 5월 14일(금) 간호대학 학부생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연구발표회가 개최되었다. 본 연구발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ZOOM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4학년 학생들은 ‘간호연구실습’ 교과목을 통해 총 2학기(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에 걸쳐 진행된 연구의 결과를 조별로 발표하였고, 이에 대하여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는 윤주영 학생부학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김현의 간호과학 연구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심사위원은 김현의 간호과학연구소장 겸 간호연구실습 과목지도교수, 윤주영 학생부학장, 고진강 학과장이 맡았다. 발표는 총 6팀이 각각 10분씩 실시하였으며, 각 발표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과 교수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는 연구에 대한 심사 총평과 함께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모든 연구발표가 우수하였으나 최종 대상에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약물계산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약물계산자 신감, 약물계산능력을 중심으로(홍연진 외 10인)’가 선정되었고, 최우

수상으로는 ‘임상실습 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한서원 외 9명)’과 ‘피어 코칭(peer coaching) 기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차선우 외 9명)’가 선정되었다. 우수상에는 ‘COVID-19 유행 중 S대 간호학과 실습생들의 스트레스 양상에 따른 임상실습 시 피로, 불안 경험(조아현 외 10명)’,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대처의 매개효과(이현지 외 8명)’, ‘간호대학생의 간호과정 수행능력과 근거기반 실무 역량의 관계(강경민 외 10명)’이 선정되었다.

간호대학생 연구발표회는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발표회를 통해 학부생들의 간호학 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연구 설계부터 진행, 최종 발표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음에도 간호연구에 대한 열정과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였다는 점에서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간호대학 소식 06

# 2021학년도 교수-학생 간담회

2021년 5월 20일(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교수·학생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학장단과 학생회, 학년대표, 행정실, 조교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김혜원 학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학생회와 학교가 차례로 활동을 보고하였다. 이후로는 학생 건의사항 및 학교의 건의사항을 공유하며 의견을 주고 받았다. 또한 변경되는 2020 교과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수·학생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편의와 학교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쓸 것을 약속하였다.





## 간호대학 소식 07

## 하계교수 WORKSHOP

2021년도 하계 교수 워크숍이 6월 21일(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층 교수회의실에서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 내실화’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본 워크숍은 간호대학 교수 17인과 조교 4인, 임상간호학과 및 교학행정실 4인이 참석한 가운데 김혜원 학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였다. 오전에는 관악캠퍸스 이전 추진 현황 및 간호대학 세미나실 환경개선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학부 교육과정 개선안으로 전공필수 이론 교과목 분반 운영, 임상실습 교과목 교강사 시수 및 지도시간 변경, 전임교원 담당 학점 비율 향상, 강의-실습 블록 운영 지속여부, 전공선택 교과목 개설에 대한 열띤 논의로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대학원 교육과정 개선안으로 신입생 전형 요소 및 선발방법, 논문자격시험 응시 자격 및 논문계획서 제출 자격, 공통필수 교과목 선수과목 지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임상간호학과 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마무리 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현재의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여러 교수들이 함께 고민하였던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효과적인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간호대학 소식 08

## 2021년도 세계선도 중점학과 육성사업

세계선도 중점학과 육성사업은 QS 세계 대학 순위 등 공신력 있는 국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과(부) 가운데 연구실적과 계획 이행도가 높은 학과(부)를 대학 본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간호대학은 2019년부터 세계선도 중점학과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는 ‘미래 간호 전망’, ‘간호교육 실습환경 혁신을 통한 미래 간호교육 선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역사와 미래 조망을 통한 글로벌화 전략’을 주제로 하며 총 2,5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역사와 미래 조망을 통한 글로벌화 전략’에서는 간호대학의 관악캠퍼스 이전 결정에 맞추어 그간 간호대학이 걸어온 간호교육, 실무, 연구 영역의 역사적 가치를 기록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의 간호학 박물관 수장고 정리 및 소장 아이템 디지털화를 시작으로 하여, 현 연건캠퍼스 간호대학의 건축 및 환경의 영상화 작업을 진행 하였으며, 스마트 박물관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본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간호학 110년의 사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며, 미래 간호인재들을 위한 역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간호대학 소식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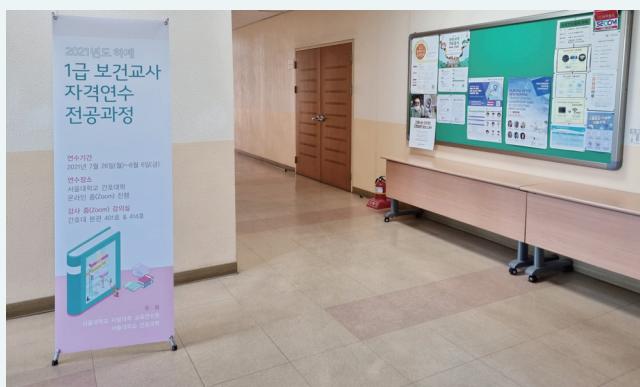
## 2021년 하계 1급 보건교사 자격연수 전공과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과 간호대학에서 주최하는 2021년도 하계 1급 정교사 및 보건교사 자격연수가 2021년 7월 26일(월)부터 8월 6일(금)까지 2주간 실시되었다. 이번 1급 보건교사 자격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연수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지역에서 이번 연수에 참여한 보건교사 80명은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1주간의 교양·교직과정과 간호대학에서 주관하는 2주간의 전공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80명의 보건교사 모두 최종 평가에 합격하여 1급 정교사 자격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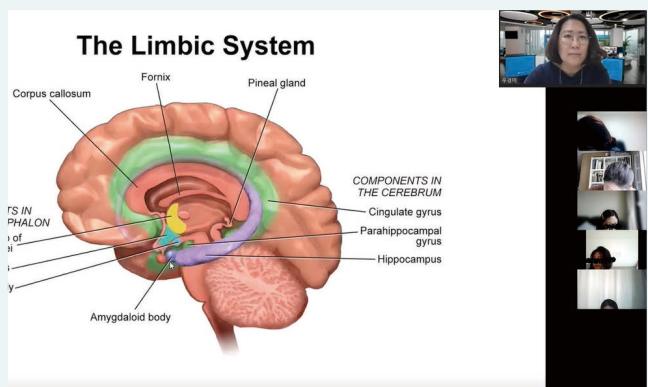


팬데믹 시대 보건교사의 어려움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된 이번 하계 1급 보건교사 자격연수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을 초빙하여 진행되었다. 교과 관련 최신 이론 및 보건교육의 역사와 정책,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강의법이 소개되었다. 또한, 코로나 19 시대의 참여 협력형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응급상황 대처, 아동 청소년의 심리기제와 대처 기술, 건강사정 및 통상질환 관리, 소아 당뇨를 중심으로 한 건강 요보호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소통과 존중의 성교육 수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실제 보건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커리큘럼을 운영하였다.



사범대 연수원에서 진행된 연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간호대에서 진행된 전공 과정의 전반적인 연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비대면으로 연수가 진행되었음에도 의사소통의 문제 없이 원활한 진행으로 연수 참여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간호대학의 노력으로 진행된 이번 보건교사 자격연수를 통해 보건교사들은 그 전문성이 향상되고, 1급 보건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쌓아 보건교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미래 대한민국의 주축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보건교육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 간호대학 소식 10

### 2021 간호학캠프 개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79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19일(목), 20일(금) 이틀에 걸쳐 2021 간호학캠프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간호학문을 탐구하고 직·간접적으로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고교생들에게 제공하여 간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키고, 진로 탐색 및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21 간호학캠프는 김혜원 학장의 환영사로 개회한 후, 윤주영 학생부학장의 간호학 캠프 소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간호학 입문을 주제로 한 고진강 학과장의 특강이 있었다. 그 후, 참가자들은 간호대학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간호대학 투어 및 Ice breaking의 시간을 가졌다. 간호대학의 샤인센터와 간호학박물관, 그리고 서울대 병원의 간호간병동과 수술실에 대한 소개 영상을 시청한 후에,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간호에 대한 게임 또는 퀴즈를 진행하고 간호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특강으로 서울대학교병원 DICU 이은준 수간호사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COVID-19와 간호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본 특강을 통하여 코로나시대에 많은 간호사들이 어떻게 환자들을 치료하고 방역하는지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간호학과의 캠프인 만큼 직접 간호술기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보호장구 착용', '상처드레싱', 그리고 '수액연결 및 3-way 조작'을 실습하였다. 참가자들은 이 활동을 통하여 간호가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고,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크게 만족하였다며 밝혔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진로에 대한 윤주영 학생부학장의 특강이 진행되었고, 수료증 수여와 단체사진 촬영을 끝으로 간호학 캠프는 막을 내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음에도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2021 간호학캠프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리적 자원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고교생들에게 간호와 관련된 기초 지식과 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탐색과 계획 수립, 동기 부여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간호대학 소식 ⑪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협의회

2021년 8월 24일(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의 협의회가 의생명연구원 지식영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간호대학 김혜원 학장, 조성현 교무부부장, 윤주영 학생부학장, 고진강 학과장과 서울대학교병원 이경이 간호본부장, 정은희 간호행정교육팀장, 이미영 간호행정파트장, 권희경 간호교육파트장이 참석하여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간호대학과 간호

부문에서 2021학년도 상반기 인사, 행사 및 활동, 그리고 2021학년도 하반기에 예정된 양 기관의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서면보고하였다. 또한 간호대학 4학년 학생의 병원 취업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의하였으며,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간호대학 소식 ⑫

### 제75회 후기 학위수여식

2021년 8월 27일(금)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75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020명, 석사 1,010명, 박사 701명 등 총 2,731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사를 통해 오세정 총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위로와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의 결실로 학위를 취득한 것에 대한 축하를 전하며, 서울대학교에 대한 기대와 주목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진리와 정의, 그리고 공정과 형평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길 당부했다. 더불어 졸업생들의 미래는 찬란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나아가기를 축원했다.

이날 축사는 이희범 총동창회장과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이 맡았다. 이희범 총동창회장은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에 성실한 자세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길 당부하였다.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접촉의 중요성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배타적 논리 속에 있었음을 반성하기를 이야기하며, 졸업생들이 획일주의, 전제주의로부터 새로운 사

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당부하였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간호대학은 학사 9명, 석사 8명, 박사 13명 도합 30명이 학위를 받았다. 우리 졸업생들이 대학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의 발전을 선도하고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 간호대학 소식 13

# 환경개선

간호대학 환경개선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특히 본관 401호 스마트 강의실 조성을 위해 본부 학사과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제2연구동 세미나실 조성 및 기타 세미나실 개선을 위해 본부 예산과에서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 ○ 제2연구동 1층~3층 환경개선

일시 : 2021. 4. 7.~4. 14

내용 : 제2연구동 1층~3층 복도 벽체 도장 공사



〈제2연구동 1층~3층 환경개선〉

### ○ 본관 지하주차장 차단기 설치

일시 : 2021. 5. 28.~5.31.

내용 : 본관 지하주차장 외부인 차량 입차 방지용 차단기 설치



〈본관 지하주차장 차단기 설치〉

### ○ 제2연구동 세미나실 조성 외 기타

일시 : 2021. 6. 24.~7. 8.

내용 : 제2연구동 327호 중앙벽체 설치 및 328호 세미나실 조성

본관 104호 학생회실 조성 및 306호 창고 조성 외



〈제2연구동 세미나실 조성 외 기타〉

### ○ 제2연구동 강당 로비 폴딩도어 설치

일시 : 2021. 7. 15.~7. 29

내용 : 제2연구동 강당 로비 폴딩도어 설치(세미나실 2개 조성)



〈간호대학 스마트강의실 조성〉

### ○ 간호대학 스마트강의실 조성

일시 : 2021. 8. 18.~9. 1

내용 : 본관 401호~402호 확장 및 스마트강의실(강의시스템 설치 외) 조성

### ○ 제2연구동 후면 출입구 방충망 설치

일시 : 2021. 9. 6.~9. 10.

내용 : 본관 지하 노후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

## 간호대학 소식 14

# 직원동정

### ○ 행정실

〈2021.7.1.발령〉 행정실장 유호상,  
교학행정실 담당관 박중호

### ○ 조교

〈2021.7.1.임용〉 유영민 조교 → 이예솔 조교 (기본·재활간호학)

### ○ 샤인센터

〈2021.9.1.임용〉 김보혜 사무국장

### ○ 부속실

〈2021.10.5.임용〉 김예은

### ○ 시설관리반

〈2021.9.1.발령〉 경비 백운기, 청소 박수자



##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①

## 2021년 간호과학연구소 평가 결과 안내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3년에 한 번 진행되는 간호과학연구소 운영성과 평가에서, 총합 평점 77.32, 최우수 A1 등급 (총 32개 인문사회계 개별 연구소 평균: 70.44)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간호과학 연구소의 항목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문사회계 개별연구소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배점	RINS
I. 연구소 조직 및 운영(15)	I-1. 설치목적과 운영개방성	5	4
	I-2-1. 예산운용 및 관리의 적절성과 투명성	4	3.2
	I-2-2. 인력과 실적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3	2.4
II. 연구여건(20)	I-2-3. 대외홍보실적	3	2.1
	II-3. 연구소인력	5	3.4
III. 연구소 활동(50)	II-4. 연구시설과 장비	5	3.7
	II-5. 연구비	10	8.5
	III-6. 연구실적	20	18.12
IV. 연구소 발전계획(15)	III-7. 학술활동	20	11.2
	III-8 대학 및 사회기여	10	8
	IV-9-1.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여부	1	0.8
	IV-9-2. 개선여부와 정도	2.5	2
	IV-9-3. 개선결과가 대학과 연구소 발전에 기여한 내용과 정도	1.5	1.2
	IV-10-1. 설치목표와 발전방향의 일치성	4	3.6
	IV-10-2. 목표달성 가능성	3	2.7
	IV-10-3. 기여도	3	2.4
	계	100	77.32

##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②

## 겸무연구원 연구 동향 세미나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 겸무연구원 연구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겸무연구원 연구 동향 세미나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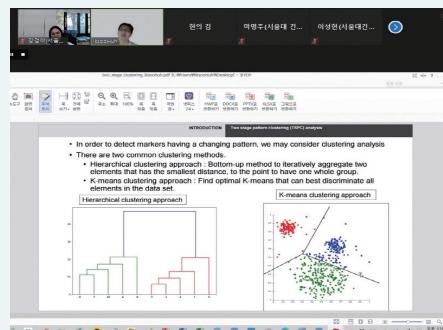
날짜	주제	강사
4월 7일 (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김진현 교수
5월 26일 (수)	Two-stage clustering analysis to detect pattern change of biomarker expression between experimental conditions	허익수 교수

수기 적정성 평가

- 간호간병 수기의 원가보전율(2017년)
  - 상급종합 100%~112%, 종합병원 125%~132%, 병원 116%~128%
- 간호간병 수기의 실제 가산율(2020년) : 39%~42%(일반 병동), 29%~30%(재활 병동)

실제 가산율		
	간호간병 일반 병동	간호간병 재활 병동
전체	41.3%	29.5%
상급종합	39.1%	-
종합병원	41.6%	28.7%
병원	39.2%	29.6%

〈연구동향세미나 김진현 교수〉



〈연구동향세미나 허익수 교수〉



##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3

## 2021년 대학원생 학술모임 발표회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는 대학원생의 간호학문 탐구를 지원하고 연구능력 향상을 돋기 위하여 2020년 2학기에 대학원생 학술모임 지원사업에서 3개의 학술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3개 학술팀의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결과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했다.

## ○ 2021년 대학원생 학술모임 발표회 일정 및 선정팀

- 일시 : 2021년 6월 23일 (수) 12:00~13:00
- 장소 : 온라인(Zoom)

NO	전공	구성원	학술모임명
1	지역	김애리 외 1인	지역사회 간호 동행자
2	성인	석윤희 외 2인	간호사의 경보음 피로에 대한 인식과 경보음 관리 : 다중센터 연구
3	정신	이금희 외 1인	정신건강을 위한 메타분석 모임

##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4

##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외국인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일정

- 일시 : 2021년 7월 7일 (수) 9:00~10:30
- 장소 : 온라인(Zoom)

날짜	주제	연자(소속)
7월 7일 (수)	CBPR and Consumer Health Informatics	Katherine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Nursing)

##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5

## 여름방학 통계 특강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통계 특강을 개최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여름방학 통계 특강 일정

- 일시 : 2021년 7월 22일 (목) 10:00~17:00
- 장소 : 온라인(Zoom)
- 강사 : 허익수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시간	주제	내용
10:00~10:50	R 프로그램 강의 1	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의 입출력
11:00~11:50	R 프로그램 강의 2	기본적인 자료계산 및 함수 소개
12:00~13:00	점심시간	
13:00~13:50	기초 통계 강의 1	기초 통계량 및 분포 소개
14:00~14:50	기초 통계 강의 2	Z-test, T-test 등 두 그룹 간 평균 비교
15:00~15:50	중급 통계 강의 1	ANOVA, 회귀분석
16:00~16:50	중급 통계 강의 2	범주형 자료 분석, 비모수 자료 분석

##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6

## 2021년 2학기 국내학술대회 일정 안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간호의 융합 등과 같은 현시대가 필요로 하는 간호 혁신을 이끄는 리더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간호사의 융합연구를 위한 학술대회가 계획되어 있다. COVID-19으로 인해 행사가 비대면 전환되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다양한 다학제 융합 연구의 협업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의 간호 융합연구 방향을 탐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

## ○ 2021년 2학기 국내학술대회

- 주제 : 창의적인 다학제 융합을 통한 간호혁신

Thinking out of the box: creative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toward nursing innovation

- 일시 : 2021년 10월 28일 (목) 오전 9:00~12:30

- 장소 : 온라인(Zoom) 참여 주소는

홈페이지(<https://rins.snu.ac.kr>)를 통해 공개

- 세부일정 : 추후공개



##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7

## 2021년 2학기 수요학술세미나 일정 및 주제 안내

2021년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하는 2학기 수요학술세미나가 2021년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다음과 같은 주제로 여섯 차례 계획되어 있다. 참여 방법은 간호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s://rins.snu.ac.kr>)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일시	주제	연자(소속)
1 9월 8일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Injuries Among Healthcare Workers: Impact of Safe Patient Handling Legislation	Soo-Jeong Lee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2 10월 6일	기생충증진과 한국 바이오산업의 미래	서 민 교수 (단국대학교)
3 10월 13일	여성노동자 되기 : 재일교포 1세 여성, 조선여공, 파독간호사 연구에 기초하여	권숙인 교수 (서울대학교)
4 11월 3일	Smart Education and Practice in Nursing	신현숙 교수 (경희대학교)
5 11월 17일	U.S. community-Based Programs to Reduce Health Disparities in Childhood Obesity : Implications for Nursing Research	Jiwoo Lee 교수 (University of Minnesota)
6 11월 24일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Cardiovascular Health	Chiyoung Lee 교수 (University of Washington Bothell)

##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8

## 2021년 2학기 간호플러스세미나 일정 및 주제 안내

2021년 간호과학연구소에서 국내외의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동향을 접하고 간호 적용 가능성을 함께 토론하기 위해 주최하는 2학기 간호플러스세미나가 2021년 9월 15일부터 11월 10일 까지 다섯 차례 계획되어 있다. 참여 방법은 간호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s://rins.snu.ac.kr>)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일시	주제	연자(소속)
1 9월 15일	Value of Nursing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JungIn Park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 9월 29일	서울대학교병원 CDM 연구 현황 및 향후 계획	김광수 교수(서울대병원 융합의학과)
3 10월 20일	Data Analytics for Health: Utilizing Large Social Media Data	Albert Park 교수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rlotte)
4 10월 27일	Machine Learning-Based Nicotine Addiction Prediction Models for Youth E-Cigarette and Waterpipe (Hookah) Users	Jeeyae Choi 교수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
5 11월 10일	Designing Emerging Technologies for Health	Jina Huh-Yoo 교수 (Drexel University)

## 간호학 교육연수원 소식 01

## 2021년 2학기 간호학 교육연수원 공개강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8월 17일부터 8월 23일, 총 5일간 온라인을 통한 ‘간호학 교육연수원 2021년 2학기 공개강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부 과정의 정신건강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성인·중환자간호학, 간호관리학의 이론과 실습 교육에 대한 교육운영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춰 기획하였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다음과 같다. 상세 내용은 간호학 교육연수원 홈페이지(<https://edunursing.snu.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일시	교육 주제	강사(소속)
A	8월 17일(화)	(예비 교육자를 위한) 정신간호학 교과목 운영 전략	김성재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최희승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황보영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B	8월 18일(수)	여성건강간호학 교과목 운영 전략	김윤미 교수(가천대 간호대학), 안숙희 교수(충남대 간호대학)
C	8월 19일(목)	지역사회간호학 교과과정 개발전략	장숙랑 교수(중앙대 간호대학), 윤주영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D	8월 20일(금)	학부 중환자간호학 교과목 운영 사례와 전략	장선주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하이경 교수(동의대 간호학과), 손연정 교수(중앙대 간호대학)
E	8월 23일(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실무를 활용한 간호관리학 강의와 실습	조성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김문숙 간호과장(서울대학교병원)



## BK21 Four 교육연구단 소식 ①

**2021년도 1학기 해외연자 초청 세미나**

서울대학교 4단계 BK21 미래 간호인재 양성사업단에서는 BK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자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자	Prof. Sadie Hutson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College of Nursing)
제목	Chronic Illness in Rural and Underserved Areas: A Nursing Science Perspective
일시	2021년 5월 4일 (화) 12:00~13:30
장소	온라인(Zoom)

## BK21 Four 교육연구단 소식 ②

**2021년도 BK21 4단계 대학원혁신 사업 우수연구인재 Fellowship 프로그램 장학생 선발(신입생 대상)**

서울대학교 4단계 BK21 미래 간호인재 양성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중 신입생을 대상으로 본부에서 지원하는 BK21 4단계 대학원혁신 사업 우수연구인재 Fellowship 프로그램 장학생에 석사과정생 박정현, 박사과정생 이다연, 황윤정이 선발되어 2021년 1, 2학기, 1년간 월 160만원씩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 BK21 Four 교육연구단 소식 ③

**대학원생 포토보이스 연구방법론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4단계 BK21 미래 간호인재 양성사업단은 BK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 연구방법론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2차	3차
연자	박은옥(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목	포토보이스 연구방법1	포토보이스 연구방법2	간호학 연구에서의 포토보이스 활용
일시	2021년 6월 24일 (목) 10:00~12:00	2021년 6월 25일 (금) 10:00~12:00	2021년 7월 1일 (목) 10:00~12:00
장소	온라인(Zoom)		

## BK21 Four 교육연구단 소식 ④

**교육과정개발 연구 협약**

서울대학교 4단계 BK21 미래 간호인재 양성사업단에서는 교육과정개발 연구 협약을 다음과 같이 맺었다.

과제명	미래 간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교육자와 학습자 요구 확인
연구책임자	이경숙 교수 (연구보조원 : 이준아)
총 연구비	교육과정개발비 5백만 원
총 연구기간	2021년 8월 16일 (월)~2022년 2월 28일 (월)

## BK21 Four 교육연구단 소식 ⑤

**1학년도 자체평가 실시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2020년 9월에 처음 BK21 4단계 사업을 시작한 간호대학 BK 교육연구단에서는 2021년 8월까지의 1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보고서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였다. 지난 1년간의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교육, 연구 역량의 변화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BK 참여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의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교육과정의 개선과 국제화 부분에서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 BK21 Four 교육연구단 소식 ⑥

**2021년도 2학기 BK 지원대학원생 선발**

2021학년도 2학기에는 31명이 BK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되는 총 인원은 16명이다. 석사과정생 2명에게는 월 70만원, 박사과정생 9명에게는 월 130만원, 박사수료생 5명에게는 월 100만원씩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 BK21 Four 교육연구단 소식 ⑦

**2021년도 2학기 간호과학연구소 -BK21 Four 공동 주최 세미나**

2021학년도 2학기에는 간호과학연구소와 BK21 Four ‘미래간호인재 양성 사업단’ 공동 주최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학부 소식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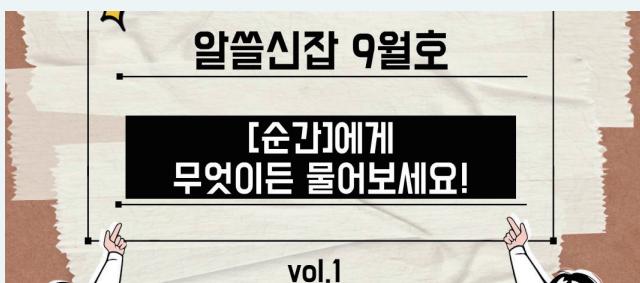
## 학생회 이야기 - 제30대 학생회 이야기

## 1. 「순간」에게 물어봐' 오픈채팅방 운영

간호대학 재학생들이 익명으로 다양한 궁금증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순간」에게 물어봐'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입니다. 학생회나 간호대학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거나, 학생회 활동 및 간호대학 내 활동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할 때, 혹은 익명을 빌려 상담이 필요할 때, 간호대학 재학생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들어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담당자들 역시 익명으로 답변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설 이후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 간호대학 알쓸신잡 사업

간호대학 재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회 PR팀에서 매달 초에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간호대학 잡학사전 : 간호대학 알쓸신잡'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배포된 알쓸신잡 카드뉴스에서는 간호대학 재학생들이 가질 만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lt;간호대학 알쓸신잡 사업&gt;

## 3. 교재기부 사업

2월부터 교재기부를 받아, 9월에 교재기부 사업의 배부를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께서 기부해주신 국가고시 교재 및 전공 교재를



&lt;교재기부 사업&gt;

신청자들 대상으로 배부했습니다. 중고 책 교류를 통해 벼려지는 교재를 최소화하고, 후배들은 교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교재기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학생회 비로 이용되어 학생들을 위한 여러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4. 중간고사/기말고사 간식사업

공부를 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간호대학 학우들에게 주는 작은 응원 선물의 일환으로, 학생회 학생복지팀에서는 학기마다 중간고사/기말고사 간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학년과 3~4학년의 시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년별로 간식사업을 진행하는 날짜를 다르게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간식은 비대면 강의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 기프티콘으로 제공하였습니다.

## 5. 스터디그룹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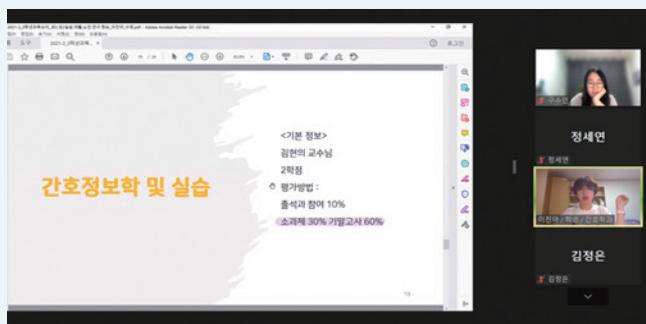
비대면 강의 상황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간호대학 재학생들을 위해,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스터디그룹 개설을 학생회 차원에서 돋는 스터디그룹 사업을 학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특정 시간에 ZOOM에서 비대면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여, 재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도왔습니다. 그룹별로 함께 공부한 시간을 인증하여 합산한 결과가 가장 많은 그룹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습니다.

## 6. 전공로드맵 사업

교과과정 변동으로 인해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간호대학 재학생들을 위해, 전공 로드맵을 제작하여 공유하였습니다. 2019 이전 학번과 2020 이후 학번 사이에서 변동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새롭게 개설되거나 개편되는 교과목을 정리하여 재학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유하였습니다.

## 7. 2학기 과목OT 사업

지난 9월에 3일간 1~3학년을 대상으로 선배들에게 전공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 과목OT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학년별로 전공 수



&lt;2학기 과목OT 사업&gt;



업이 끝나는 시간대에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계획서에 더하여, 강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이미 겪어본 선배들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들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과목OT에 참석하지 못한 학우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과목OT 종료 후 이를 담당한 선배들이 만든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 8. NMP(Nursing Mentoring Program)

지난 9월부터 zoom을 이용해 NMP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을 위해 3~4학년 재학생이 멘토가 되어 1~2학년 재학생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도왔습니다. 더불어 비대면으로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선후배 간 교류 및 친목 도모하였습니다.



〈Nursing Mentoring Program〉

### 학부 소식 02

## 학부생 수상내역

2020학년도 후기 졸업포상	수여자 이름
최우수상	전유진
최우등	강은주
최우등	박여림
우등,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상	김현지



## 학부 소식 03

## 동아리 탐방 - 햇빛봉사단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는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진 국제 비영리단체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집과 마을을 짓고 희망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78개국에서 해비타트 운동을 실천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자립의 기반을 닦도록 돕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후원 파트너, 자원봉사 파트너, 험 파트너가 힘을 합쳐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이로써 참여자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순환을 지향합니다.

서울대학교 햇빛봉사단은 최우수 CCYP (Campus Chapter Youth Program: 해비타트 산하 대학 동아리 연합회)로서 해비타트 외에도 관악구청, 학생처, 사단법인 함께 웃는 세상 등 많은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봉사활동으로 희망의 집 짓기와 집 고치기 등 건축 봉사활동이 있으며, DIY 가구 만들기, 관악구 집 고치기 사업, 벽화 그리기, 연탄 봉사, 제빵 봉사 등의 봉사를 자체적으로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10~12회(월 2~4회)의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방학에는 더 많은 건축, 가구 만들기 봉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볼런투어, 해외 봉사 등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CCYP 연합에 소속된 학교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연합 건축 봉사, 홍보 모금 행사, 체육대회, 일일 호프 모금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있습니다(현재 볼런투어와 해외 봉사 및 CCYP 연합 봉사활동, 기타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 고치기 활동은 관악구 또는 구로구 지역 사회의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집을 보수 공사하는 활동입니다. 주로 집안 환경 개선, 벽지 도배, 페인트칠, 장판 교체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DIY 가구 만들기는 가구 디자인, 설계, 재료 구매, 센터 선정, 배달까지 오

롯이 햇빛봉사단에서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선반이나 책장 등을 직접 만들어서 완성된 가구들을 관악구 내의 여러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합니다. 겨울엔 연탄배달이 힘든 지역을 찾아가 연탄을 나르며 주위의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연탄 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워졌지만, 희망의 집짓기 활동 또한 방학마다 개최되는 봉사입니다. 군산, 진주, 광양, 춘천 해비타트 지부 현장에 파견되어 진행하는 집짓기 봉사로,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 다문화 가정에 희망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활동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시즌에 관악구 내의 아동센터에서 산타 봉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전해주고 함께 놀면서 추억을 만들 어줍니다. 그리고 방학 때 진행하던 볼런투어는 봉사(volunteer)와 여행(tour)의 콜라보 활동입니다. 환경 개선이 필요한 마을로 직접 찾아가 2박 3일 또는 3박 4일간 마을 주민분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 활동입니다. 봉사가 끝난 후에는 마을 주변 명소를 구경하며 동아리원들과의 친목도 다집니다.

햇빛봉사단에서는 ‘실천하는 지성’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모든 학과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겁게 봉사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관악 최대 규모의 중앙 동아리로, 봉사의 보람도 느끼고 좋은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동아리 내에서 엠티, 조모임, 소규모 취미 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사람들과도 즐겁게 친해지고(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이 좋은 기운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눕니다. 험 파트너와 함께 땀 흘려 집을 짓는 기쁨을 느끼고 싶다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따뜻한 추억을 쌓고 싶다면 햇빛봉사단으로 오세요!





## 학부 소식 04

## 학생 이야기 1 - 신입간호사 채용 합격 수기 “서울대학교병원”



18학번 박채원

간호사를 꿈꾸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입학하였고, 그 꿈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매우 기쁩니다. 제가 선배님들의 신규간호사 채용 합격수기를 읽으며 도움을 받았듯이, 이 글이 다음에 있을 채용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병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곳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COVID-19으로 인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타병원에서는 실습뿐만 아니라 인턴십에 조차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서울대학교병원은 총 3학기 동안의 임상실습이 대부분 이루어졌던 곳이고, 다양한 근무지에서 많은 것들을 직접 보고 들으며 학생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의 간호사가 된다면 빠르게 근무환경에 적응하여 최상의 간호를 보다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여러 병원의 신규 간호사 채용 기간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어느 한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평소에 병원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동영상, 선배들의 조언, 학과에서 진행하는 진로 관련 행사 등을 통해 병원들의 정보를 얻고, 미리 가고 싶은 병원의 우선순위를 정해놓는다면 훨씬 수월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작년보다 약 100명 적은 284명을 채용하였고, 채용절차와 각 전형의 합격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서류전형(3배수), 2차 필기시험(2배수), 3차 실무면접(1.5배수), 4차 최종면접(1배수), 5차 신체검사]

우선, 지원서 접수 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였습니다. 입사지원서에는 ①2학점 이상 전공과목 5개 성적, ②공인영어시험 성적·자격사항, ③경험·경력, ④자기소개서 내용을 기재합니다. 토익은 3학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걸쳐 준비하여 성적을 높였습니다. 4학년 1학기가 시작되면 강의와 실습, 취업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최대한 3학년 겨울방학까지 900점 이상의 높은 영어성적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공고가 올라오면 지원서 접수 마감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으므로 자기소개서는 작년 문학을 참고하여 미리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 대학 재학 중에 했던 다양한 활동과 인상 깊었던 경험, 그것을 통해 배운 점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가장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 또한 되도록 3학년 겨울방학 때 시간을 내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한 활동들을 문서화하여 연도별로 모아놓았고, 임상실습 시 작

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크게 도움 되었습니다. 지원서 작성은 마치고 나면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블라인드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불확실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인사팀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2차 필기시험은 6월 26일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필기시험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6월 21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원서 접수를 마친 직후부터 필기시험 준비에 집중하였습니다. 약 2 주간 국가고시 대비 개념서와 문제집을 활용하여 성인간호학을 주로 공부하였고, 다른 과목을 복습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 필기시험은 성인·아동·여성·정신간호학과 간호관리학 전반에서 총 5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직전까지 성인간호학 외의 과목은 복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4학년 1학기에 여성, 정신, 관리 과목 강의들을 충실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4학년 1학기 성적이 채용과정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필기시험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며 모든 전공 강의를 열심히 들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기시험을 마치면 3차 실무면접과 4차 최종면접(경영진면접), 총 두 번의 면접을 보게 됩니다. 각각 7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진행되었고, 면접 방식과 질문 등 관련 모든 내용은 유출하지 않도록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주로 동기들과의 스터디를 통해 면접을 준비하였고, 실제 면접이 마스크를 쓴 채 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환경에서 연습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정기적인 대면 모임을 가졌습니다. 면접 직전에는 면접복장을 갖춰 입고 모의면접을 진행했던 것이 실전에서 크게 긴장하지 않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면접을 거치고 나니, 당연히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관님들께 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정확하게 답변을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면접으로 인해 준비기간 동안 걱정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연습에 집중하며 면접 태도와 답변을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실전에서도 잘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채용 준비과정은 분명 혼난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처럼 느껴지겠지만, 매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새 그 길 끝에 다다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원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 학부 소식 04

## 학생 이야기 1 - 신입간호사 채용 합격 수기 “삼성서울병원”



18학번 김선영

합격 수기를 적으려고 하니 간호대학에 입학한 후 약 4년 동안의 학교 생활이 잔잔히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걱정과 불안이 커던 취업 준비 기간을 떠올려보면, 이런 선배들의 합격 수기나 조언들이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내년 채용을 준비하는 후배님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내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일정과 전형별 평가방식에 변화가 많았다면, 1년이 지난 올해에는 신규간호사 채용인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 만큼 모든 전형에서 경쟁률이 높아졌고, 그만큼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일정이 6월로 연기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삼성서울병원은 평년 대로 5월 14일에 서류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1차 서류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 뿐만 아니라 평점평균과 석차, 공인어학 성적, 실습과 같은 경력 등 여러 문항을 기입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서류전형에서 기입해야 하는 여러 문항을 파악하여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역량이나 경험이 무엇인지 미리 그려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의 많은 장점들을 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신을 일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이 병원의 가치관, 비전과 일치한다는 것을 자기소개서 각 문항에 녹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각 병원의 가치관과 비전을 찾아보고, 녹여낼 자신만의 경험과 경력도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 작성은 겨울방학이나 공고가 나오기 전에 여유롭게 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리고 면접전형에서는 서류에 기입한 내용들을 토대로 관련 질문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어학성적은 4학년 1학기 개강 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진 만큼 영어 성적 커트라인도 높아졌기 때문에 토익 기준으로 900점 이상은 기본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하면,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GSAT'라는 2차 직무적합성평가를 응시해야 합니다.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GSAT를 온라인으로 응시했습니다. 수리논리(20문항)과 추리(30문항), 간호지식(30문항) 3과목만 응시했고, 작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간호지식 과목이 25문항에서 30문항으로 늘었습니다. 25문항인 줄 알고 5문제는 보지도 못한 응시자들이 있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GSAT는 오래 공부하고, 많이 훈다하고 꼭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각 과목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주어지고, 풀지 않은 문항은 감점이 없지만 틀린 문제는 감점이 있

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은 ‘많이 푸는 것보다 정확히 풀기’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기 때문에, 확실히 정답을 고르고 모르면 빠르게 넘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GSAT 문제집을 구매하여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자신이 어떤 문제에 강하고, 취약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어떤 문제부터 풀고, 어떤 문제는 포기할지 자신만의 루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적의 루틴을 찾았다면 남은 기간 동안 그 루틴대로 실전처럼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차 GSAT를 합격하면, 이제 1차 면접인 실무진 면접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접 대비는 무엇보다 면접스터디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는 환자 사례를 읽은 후 케이스 요약, 내릴 수 있는 모든 간호진단과 최우선 간호진단, 그에 따른 적절한 간호중재의 목적과 절차, 관련 전공지식을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실무 면접스터디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전공지식을 묻는 질문을 잘 대처하는 능력을 키웠고, 자세나 표정, 목소리 등 실전에서 놓칠만한 부분도 함께 고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실무 면접에서도 뇌압 상승의 징후 및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최우선 간호진단과 간호중재를 묻는 질문을 받아 어려움 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면접이지만 전공지식 뿐만 아니라 지원동기, 장단점, 미래 계획 등 자기소개서와 서류전형에서 기입한 내용을 토대로 한 질문도 받습니다. 1차 면접 합격 후에는 2차 면접인 경영진 면접이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면접장에 가서 화상면접을 보게 됩니다. 경영진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서류전형에서 작성한 것들과 관련해 자신의 간호가치관, 비전과 자신의 취미나 특기 등 개인적인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모니터에 오류창이 나타나는 돌발 상황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침착히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대답과 자신감 있는 태도, 긴장하지 않은 듯한 편안한 미소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님들이라면 충분히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의 모든 채용 절차를 경험하면서 면접장의 좋은 시설과 인사팀 직원들의 친절함 등 삼성서울병원이 지원자와 직원들의 편안을 위해 많은 것들을 고려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삼성서울병원을 선택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후배님들도 여러 병원에 지원한 경우, 결국 한 병원을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약 3개월간의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각 병원의 장단점을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토대로 후배님들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학부 소식 04

## 학생 이야기 1 - 신입간호사 채용 합격 수기 “서울아산병원”



18학번 이진아

작년 간호대학 뉴스레터에서 선배들의 합격 수기를 읽으며 많은 도움을 얻었었는데 올해 이렇게 합격 수기를 작성할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4학년 1학기는 실습, 시험,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학기여서 굉장히 바쁜 학기였습니다. 생각보다 취업 준비에 투자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서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학년 1학기 취업을 위해서는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을 잘 관리해두는 것이 필요하고, 공인영어성적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영어 시험 일정이 변동될 수 있고 학기가 시작되면 실습으로 인해 영어 공부할 시간이 적으므로 겨울 방학 중에 영어 시험 응시를 완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병원들이 많아서 여러 병원을 준비하였고 그 중 최종적으로 서울아산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서울아산병원의 설립이념에 감명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 시작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돋는다’라는 취지로 설립된 병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병원에 선정된 서울아산병원은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와 더불어 사회 환원을 실현하는 병원이기에 이곳에서 전인 간호를 실현하고자 서울아산병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취업 과정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전형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이력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학부 성적과 공인영어성적, 자기소개서 및 다양한 활동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특정 전공과목이 아니라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전체 교과목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시어 학점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1학년 2학기의 성적이 부진하다고 생각하여 공인영어 성적을 높이는 데에 공들였고 학업 외 활동(의료봉사활동, 학생회, 강연 보조, 연구 보조 등)을 통하여 이력서를 풍부하게 채우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지원하는 병원의 비전이나 미션을 확인하고 본인의 실제 경험을 녹여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병원에 지원하다 보면 자기소개서를 여러 버전으로 작성하게 되곤 하는데, 꾸며서 쓰거나 병원별로 너무 다르게 쓰면 면접준비를 하면서 다른 병원의 자기소개서와 혼갈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별로 완전히 다르게 쓰기보다 본인의 핵심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별로 추구하는 인재상을 조금씩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는 AI 조직 적합성 검사로 정해진 기간에 각자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과

조직 적합성 설문 그리고 10가지가 넘는 게임으로 구성되어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게임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게임을 통해 응시자의 문제해결력, 학습력, 판단력 등을 보는 것으로 같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했는데 이때는 고정된 질문도 있었고, 조직 적합성 설문을 바탕으로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최대한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당당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를 보고 웃으며 대답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색하므로 사전에 본인의 모습을 녹화하여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4단계는 실무진 면접과 경영진 면접입니다. 3차 실무진 면접은 환자의 사례가 제시되면 즉석에서 이에 대한 간호 진단과 간호 중재, 추가로 필요한 검사에 대해 답변을 하는 면접입니다.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다양한 사례의 간호과정을 연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여러 검사의 정상범위나 의학용어(약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차 경영진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바탕으로 한 면접이었습니다. 면접에 앞서 병원의 미션, 비전, 서울아산병원 간호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숙지하고 갔습니다. 이력서에 적은 활동들을 하게 된 계기, 그로 인해 향상된 본인의 역량, 향후 간호사로서 이 활동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등을 정리하고 이를 병원의 인재상과 연결하여 대답하였습니다. 4차 면접에 합격한 이후 병원으로부터 5차 신체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고 졸업 후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하면 서울아산병원 신규 간호사로서의 채용이 완료됩니다.

4학년 1학기에 실습과 취업을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병원의 취업을 함께하다 보니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원별 취업 일정을 잘 파악하고 놓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원을 준비하다 보면 면접 등의 과정에서 일정이 겹쳐 하나의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진정으로 내 가치관과 잘 맞는 병원, 내가 가고 싶은 병원을 생각하면서 취업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나를 믿고 온 마음을 다하면 진심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나’를 잘 보여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행복과 건강을 잘 쟁기시면서 이 과정을 무사히 마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 소식 04

## 학생 이야기 2 - 대학생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20학번 송혜림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해와소나무’ 팀으로 활동 한 20학번 송혜림입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보건복지부에서 대학생의 정신건강 편견해소 및 주권의식 향상을 위해 서포터즈를 모집했습니다. 영마인드(0 mind)의 뜻은 ‘청년(young)’의 정신건강(mind)을 응원(support)한다’ 입니다. 또한 ‘정신건강(mind)의 편견을 제로(0)로 만든다.’라는 뜻도 가집니다. 이 뜻처럼 다음 세대 리더인 청년의 정신건강을 응원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인식개선 프로젝트로, 서포터즈 경험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제공을 목표로 하는 활동입니다.

지난 2021년도 4월부터 8월까지 서포터즈 영마인드 활동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과 팀을 꾸려 ‘해와소나무’ 팀을 만들고 서포터즈에 지원해 합격했습니다. 첫 활동은 온라인 정신 건강 바로 알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살예방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 카드뉴스, 웹툰, Q&A 등의 방법을 통해 SNS 채널에 업로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변인 마음 챙기기’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주변에 둔 ‘주변인’의 입장에서 생길 수 있는 고민이나 문제를 당사자나 전문가가 답변을 주는 방식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사기 쉬운 내용으로 정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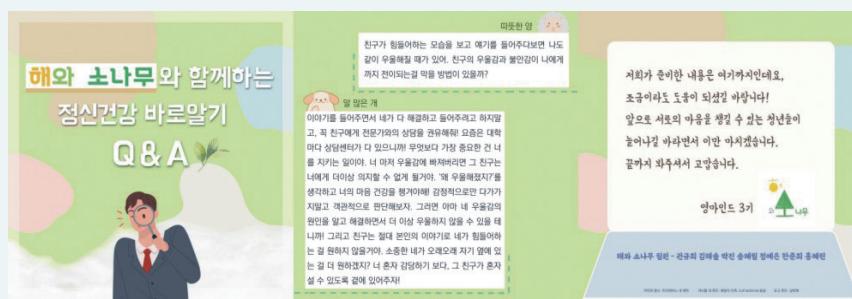
두 번째 활동은 인스타그램 ‘청년 생명존중, 마음건강’ 해시태그 릴레이 챌린지였습니다. 청년의 자살 예방 또는 마음건강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제 팀은 ‘오늘 너의 색은 어때?’를 주제 슬로건으로 잡아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감정들을 색 이름으로 바꾸고, 그에 맞는 일상 사진을 올리는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교육을 수료하고,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사회적 시선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미처 몰랐던 사회의 이면을 직시하면서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깨져 나갔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더 넓은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는 좁은 시선과 편견을 가지고, 돋기 보단 회피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저의 편견을 바라 볼 수 있었고 교육과 영마인드 활동을 통해 편견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바로 알기 캠페인, 인스타그램 ‘청년 생명존중, 마음건강’ 해시태그 릴레이 챌린지를 하면서 후에 의료진이 되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2학년이기에 정신간호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포터즈 영마인드 활동을 위해 교수님의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의료진이 가져야 할 건강한 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진 자신의 건강이 바로 설 때, 내담자 및 환자의 건강도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서포터즈 영마인드 활동을 통해서 저 자신의 마음과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하루 흘러 가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가 바로 설 수 있을 때, 저의 주변인 역시 더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내는 방법을 알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면서 진정한 건강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통해서 간호에서 배우는 ‘건강’의 참된 의미를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학원 소식 01

## 2020 후기 학위취득자 논문 목록

### 간호학 석사(8명)

김현림	일개 종합병원 근무부서에 따른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과 근무 환경인지
김지현	출산모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이용과 상향비교가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	응급중환자실의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증재 수행률과 발생률
변상아	웃음동작치료가 파킨슨병 환자의 우울, 수면장애,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정유진	퇴원이행기 미숙아의 어머니가 인지한 의료인의 지지와 양육 효능감과 정서 상태의 관계
최임영	응급실 음압 격리실에 입실한 COVID-19 확진/의심 환자 간호업무 부담
김유진	췌장암 환자의 삶의 의미,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기록	코로나19와 함께한 응급실 간호사의 1년

## 대학원 소식 02

### 교수임용

본교 대학원생 중 2021 상반기 교수 임용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용 대학	임용 대상자	전공(담당 교과목)
제주대학교	강지영	성인간호학
전주대학교	유수영	성인간호학
을지대학교(의정부캠퍼스)	김현선	성인간호학
경상국립대학교	강샘이	모성간호학
인천가톨릭대학교	이우진	정신간호학

## 대학원 소식 04

### 국제학술대회 참석명단

본교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2021.09.20.)		
Nutritional Status and Risk Factors of Malnutrition in Korean Older Men Living Alone: A Secondary Data Analysis (구두발표)	김가혜, 박연환	
EuroHeartCare – Association of Cardiovascular Nursing and Allied Professionals (ACNAP) Congress 2021 (2021.06.18.~ 06.19.)		
Patient experiences of shared decision-making are associated with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recipients' openness to discuss device deactivation at end-of-life (포스터 발표)	오은지, 이경숙	
SHEA (Society for Healthcare Epidemiology of America) Spring 2021 (2021.4.7.~4.8.)		
Experience with Bloodborne Pathogen Exposures among Operation Room Nurses in Korea: A Qualitative Study (포스터 발표)	이현숙, 강자현	



대학원 소식 05

## 대학원생 이야기 ① -

EuroHeartCare :

Association of Cardiovascular Nursing and Allied Professionals (ACNAP)

Congress 2021를 다녀와서



성인간호학 석사 재학생 오은지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간호학 전공, 석사 과정 4학기 재학 중인 오은지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지도 교수님이신 이경숙 교수님과 함께 삽입형 제세동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임종 때 삽입형 제세동기를 끄는 것( ICD deactivation)에 대해 의료진과 의논하는 데에 얼마나 개방적 인지와 그와 연관된 환자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되어 ACNAP congress 2021에 초록을 제출하였고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해외 학회에 참여하게 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ACNAP congress의 목표는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전문가들과 간호와 연계된 타 전문직종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ACNAP는 다양한 연구와 교육의 기회들을 제공함으로써 심혈관 질환 간호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학제적인 접근을 지향합니다. 학회가 진행되는 3일 동안 다양한 심포지엄과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코로나가 심혈관 질환자 간호에 미치는 영향, 심혈관질환 간호에서의 디지털 혁명 등 다양한 주제 관련한 발표와 토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회에 제출했던 초록은 ICD deactivation에 대한 환자들의 개방성과 관련된 요인들 중 end-of-life issue에 대한 환자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이전에 의료진과 다양한 end-of-life discussion에 참여하였고 이런 이슈들에 노출이 잦았던 환자들일수록 앞으로 ICD deactivation에 대한 end-of-life discussion에 더 개방적인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나이, 성별, 삽입형 제세동기 삽입 기간, 삽입형 제세동기 관련 지식 등 다른 환자 관련 요인들을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여 통제했을 때, 결과가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치료 기간 동안 꾸준히 end-of-life discussion에 대해 의논하고 환자들에게 이에 대해 미리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삽입형 제세동기가 있는 환자들로 하여금 end-of-life issue에 의견을 표출하는데 empower 해줄 수 있음을 추론하였습니다.

이 학회는 제가 처음으로 참여한 학회이자 유럽에서 주최하는 해외 학회인 만큼 더 긴장도 되었습니다. 초록을 작성할 때 지도 교수님이신 이경숙 교수님께서도 매우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주셨고 연구에 참여한 다른 외국 교수님들께서도 아주 친절하고 세세하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논문에서만 접했던 저명한 간호학자들로부터 제가 쓴 글을 침착 받을 수 있었던 매우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제출된 초록이 학회에 채택되었음을 전달받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나, 그 기쁨도 잠시 e-poster에 음성 녹음만 10차례 넘게 하고 실수로 완성본 몇 번을 날리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그래도 완성된 e-poster 결과물을 보면 매우 뿌듯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3일간 학회가 진행되어 살짝 아쉬웠지만 저명한 간호학자들을 매우 가까이서 보고 발표 주제에 대해 술술 의견을 내시는 것을 보고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학회에 채택된 다양한 e-poster들도 관심 있는 연구 주제를 선택하여 시청하고 연구자에게 직접 메일로 질문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매우 흥미로워 보이는 연구들이 많고 각국의 다양한 연구를 접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간호 연구에 대한 제 시야가 많이 넓어졌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학회에도 떨지 않고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ACNAP congress 2021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주시고 연구의 '연'도 몰랐던 저를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지도해주신 이경숙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Coauthor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동창회 소식 01

## 동창회 정기총회

2021년 4월 20일(화) 오후 4시에 열린 제69회 정기총회와 신입회원 환영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서 간호대학 201호에 1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Zoom을 통한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였다.

1부 신입회원 환영식은 탁성희 상임이사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혀영 회장님의 개회사에 이어 김혜원 학장님의 축사와 함께 학장취임 축하 꽃다발 전달식이 이루어지고 새 상임이사로 김현의 교수 소개가 있었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대표로 온라인으로 참석한 이현선 석사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번 2021년도 1학기 장학생은 11명이었다. 동창회장상은 2020년도 졸업생 최서연, 2021년도 졸업생 박선영이 받았으며 수상소감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2부에서는 정기총회로 동창회와 교육연구재단 사업보고와 회계 결산보고가 의결이 통과되었다. 이어서 임원선출이 있었으며 안건으로 혀영 회장의 연임안이 통과되었다. 혀영 회장은 직접 동문들을 못 만나는 아쉬움을 전하며 온라인에 참여한 동문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동문들을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모두 반갑게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연임된 혀영 회장의 2021년도 사업계획과 회계 예산 보고를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 동창회 소식 02

## 동창회교육연구재단 2021년도 2학기 장학생 명단

간호대학 동창회교육연구재단에서는 2021학년도 2학기 동창회 장학금 790만원을 모교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 11명에게 지급하였다. 장학금 수혜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동창회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금내역〉

장학금명	과정	성명	장학금액
김기주(70졸)	학사	김원영	60만원
신정희(79졸)	학사	김연지	60만원
84년졸업동기회	학사	김원영	100만원
김현희(63졸)	학사	이지호	100만원
이송희(50졸)	학사	오수민	100만원
임난영(71졸)	학사	김연지	100만원
허영(74졸)	학사	이지윤	100만원
57년졸업동기회	석사	김혜문	40만원
강신자(63졸)	석사	안여경	40만원
임영숙(70졸)	석사	이현선	40만원
백월랑(63졸)	석사	김철세	50만원

## 동창회 소식 03

## 간호대학 67졸 윤인숙 동문, 미국간호협회 뉴욕지부 2021년 공로상 수상

미국간호협회(ANA-American Nurses Association) 뉴욕지부에서 수여하는 2021년 공로상 중 '간호임상부문(Nursing Practice award)' 수상자로 윤인숙 동문이 선정됐다.

미국간호협회 뉴욕지부에서는 해마다 훌 오브 페임, 멘토쉽, 간호 교육, 간호임상, 제도와 서비스 그리고 스칼라십 등의 6개 부문에서 자격에 맞게 인물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적합한 인물이 없으면 그 부분을 건너뛰기도 한다. 한인 간호사가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뉴욕 한인 간호사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가치 있는 수상이다.

미국간호협회 뉴욕지부는 수상자로 선정된 근거로 "윤인숙 간호과장이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환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챙기는 배려와 성의, 또 코리언어메리칸으로서 새로 이민 온 한인 간호사들이 뜻을 세우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학문적으로나 임상적으로 멘토가 되고 그들의 성장에 크게 도움을 준 업적'을 치하였다.

이에 윤인숙 동문은 "그저 한 길 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을 뿐인데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전갈을 받고는 좀 얼떨떨했다. 제가 특별히 잘 해서라기보다는 주위의 많은 분들의 서포트로 이상을 반계 되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한인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다. 이 수상의 기쁨을 모든 한인 간호사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전했다.



1967년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윤인숙 간호과장은 1969년 도미해 플러싱병원에서 간호사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플러싱병원에서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임상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 간호대학 발전기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간 : 2021년 3월 1일~2021년 8월 31일

학사동문 및 간호대학 교수			
공은희(95졸)	김명순(71졸)	김문숙(91졸)	김봉인(71졸)
김씨래(11졸)	김영아(88졸)	김진자(71졸)	김혜성(71졸)
김혜원 교수(85졸)	노윤구(89졸)	박계수(71졸)	박세은(04졸)
박연환 교수(91졸)	박현애 교수(80졸)	유슬기(19졸)	윤주영 교수(02졸)
윤효정(08졸)	이경숙 교수(04졸)	이기남(71졸)	임난영(71졸)
장선주 교수(02졸)	장수홍(71졸)	정현명(92졸)	조인애(71졸)
최병남(71졸)	최진주(10졸)	최희승 교수	케녹스사운드(77졸)
탁성희 교수(90졸)	하양숙 명예교수(71졸)	한혜숙(71졸)	

### 기타

이정석

### 발전기금 안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학술 교류 활동 및 연구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현재 우리 간호대학은 관악캠퍼스로의 이전이 확정되어, 2025년 간호대학 신축건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에 필요한 기금 마련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발전기금 참여방법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CMS 등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서는 간호대학 홈페이지 또는 간호대학 담당자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통장 입금

- \* 농협 079-17-0000136 서울대발전기금
- \* 신한 100-014-328209 서울대발전기금
- \* 우리 1006-601-280134 서울대발전기금

### 문의처 : 간호대학 02-740-8802

\*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간호대학 관악캠퍼스 건립기금 모금 캠페인

간호대학은 연간캠퍼스에 위치한 지리적 한계에서 벗어나  
다학제-융합 간호연구 및 공공간호 복지아젠다 수행을 위한 환경조성과  
내실있는 학사행정 운영을 위해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 위한 건립기금 모금에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